

후회 없는 죽음을 위하여 -길들임의 의미-

2024.03.30. 갈매 책방

모든 인문적 성찰의 궁극에는 후회 없는 죽음이 자리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친과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죽음을 경험하고, 비행사 시절부터 독일 항복 직전까지 동료의 실종과 죽음에 익숙했던 비행사 생텍스는 자신의 옛 부대로 재입대하기 직전 모든 비행 체험의 의미를 함축하여 『어린 왕자』를 탄생시킨다.

그의 유서로서 어린 왕자 이야기에는 소설과 에세이, 시와 노트 그리고 편지들 모두를 가로지르는 자기 초월로서의 영웅적 죽음의 여정이 담겨 있다. 장미가 자신을 길들였음을 알고 장미를 다시 만나기 위해 선택한 어린 왕자의 죽음은, 미국 정부로부터는 불한당 취급당하고, 프랑스인들에게까지 배신자로 몰린 이방인 작가의 죽음의 메타포이다.

어린 왕자의 죽음은 자신을 벗어나 내가 아닌 존재를 갈구하고, 공동체의 희생을 감내하는 예술가의 실존적 선택이다. 예술가는 예술이 우정의 선물임을 알 알고 있다. 그래서 생텍스는 『어린 왕자』를 자신을 길들인 (어른-아이) 레옹 베르트에게 헌사한다. 자기를 길들인 이 절친, 어린아이 책까지 이해하는 이 유대인을 위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길들임은 진정성, 신뢰성, 인내를 갖고 마음의 힘을 지각한(성숙한 성년의 정신) 타인과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내밀한 인간관계가 여우가 보이지 않는 본질이며, (어린 시절을 회복한) 마음으로만 잘 볼 수 있는 대상이다. 삶에 독립된 것은 없으며, 나는 나의 관계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길들임은 위로하고 구원한다. 구원을 위해서는 선한 목표를 의식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돕고 노력해야 한다(전철수와 기차에 탄 어른들은 목적지를 모른 채 달려가고 있다). 어린 왕자는 인간 모두를 연루시키는 인간관계에서 그 목표를 묻고 찾게 한다.

어린 왕자는 양심의 불씨들이 서로를 길들이는 그 지점을 목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시간이 있다면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 가겠어.”) 우여곡절의 길을 가더라도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생텍스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수학자 시인’으로 정의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길들인 존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자각한다.

길들임은 자아로부터 벗어나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없기에 너희들은 텅 비어 있어.”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길들면 서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이 된다. 서로 필요하고 의존하는 사이가 된다. 길들인 것만 알 수 있고 길들인 사람만 친구하고 책임질 수 있다. 人間이란 사람-사이를 의미하며, 진정한 사람-사이는 우정으로 수렴한다. 자아에 안주하지 않는 길들임이 후회 없는 죽음의 조건이다.